

AIDS와 가정생활



이주영
서울YWCA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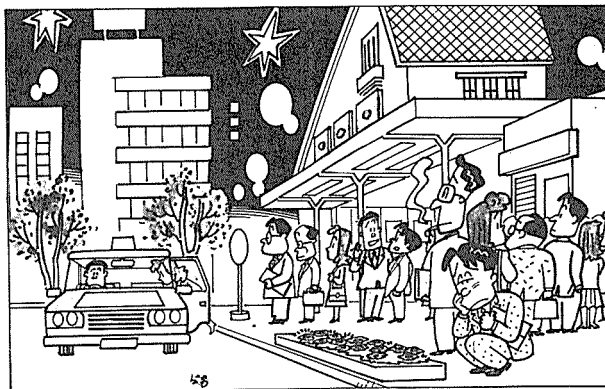
신의 저주를 받은 현대의 역병으로 불리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가 신문의 해외뉴스나 영화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참혹한 비극이나 절실한 현실문제로 등장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아프리카의 열대밀림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 괴질이 AIDS라는 병명으로 세계의 학계에 처음 보고된 것은 1981년이며 기하급수적으로 급속하게 전세계에 번져 나간 AIDS가 한반도에까지 죽음의 공포를 확산시킨 것은 1985년이다. '85년부터 국내에서 AIDS검사가 실시되자 실시 첫해에 한국인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공식적으로 세계 의학계에 처음 보고된 뒤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최초의 감염자가 국내에서 확인되기 훨씬 전에 이미 AIDS는 한반도에 침투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실시 첫 해에 감염자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검사를 좀더 일찍 실시했다면 최초의 감염자가 좀더 일찍 발견되었을지도 모르며 한국인이 감염되기 이전에 주한미군 등 외국인이 감염되어 국내에 AIDS를 전파했을지도 모른다.

어떻든 우리가 AIDS 공포에 노출된지도 10년에 이른다. 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7월까지 확인된 AIDS의 병균인 HIV(인체면역결핍균) 감염자가 4백72명이었으나 현재는 5백명이 넘었을 것이 확실하며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확인된 감염자의 4~5배로 추정한다면 실제 감염자는 네자리수(천

AIDS의 무서움은,
치유율이 0%인
불치의 괴질이며
가장 왕성한 활동시기인
청장년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귀중한 생명 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완전 파괴한다는 것이다.



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니 세
삼스럽게 오싹하는 전술에 휩싸이게 된다.

그동안 AIDS가 몰고 온 비극이 우리의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전하여져 AIDS 경각
심이 어느 정도 일깨워졌으며 AIDS 예방과
퇴치를 위한 단체도 조직되어 여러가지 활
동을 벌이고 있다.

AIDS의 무서움이란 첫째로는 치유율이 0
%인 불치의 괴질이며, 둘째로는 가장 왕성
하게 활동하는 인생의 절정기인 청장년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셋째로는 병자의 귀
중한 생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완전 파괴한다는 것이다. AIDS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고 치료방법도 정립되
지 않아 발병자가 완전 치유된 사례가 없으
며 병자는 누구든 처절한 투병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고야 만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감염되는 병자는 저
항력이 약하고 활동력이 부족한 노년층이
나 유년층이 대부분인데, AIDS 환자는 극히
적은 예외가 있기는 하나 왕성한 활동기의

청장년이 대부분이다. AIDS 희생자 중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유명 연예인과
유명 선수 등이 많다. 또한 접촉성 전염병
이란 특성으로 인해 가족중의 한사람이
HIV에 감염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가정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

치유율이 0%인 불치인데다가 인생의 최
절정기의 청장년을 표적으로 삼으며 가정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AIDS의 공포는 더
한층 증폭될 수밖에 없다. 모든 질병은 사
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은 치료약
이 없고 치료방법도 모르는 AIDS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AIDS 공포를 극복하고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방뿐인데 AIDS의
예방방법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치료방
법은 정립되지 못했지만 예방방법이 확실
하고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인류가 AIDS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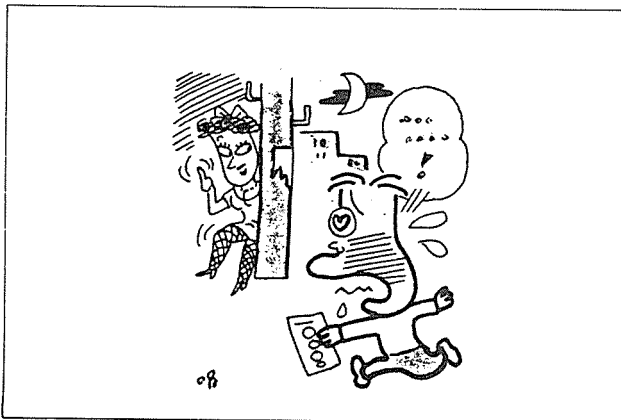
AIDS를 일으키는 병원인 HIV는 피·침 등 인간의 체액을 매개체로 하여 전염되며 감염자와의 성접촉이나 애무 행위가 체액 교류의 주요 경로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혼외정사, 동성애 등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성접촉이 AIDS 전염의 원인 중 9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접촉 이외에 감염된 혈액의 수혈이나 태아의 태중 감염,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에 의한 감염의 사례도 있으나 그 비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각종 통계수치에 나타나고 있다.

헌혈과 채혈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사와 보다 간편한 검사방법의 개발, 의료기술 과정에서 위생관리의 강화, HIV 감염부부의 출산조정 등으로 수혈이나 주사기에 의한 감염과 태아의 모태감염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AIDS 창궐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혼외정사, 동성연애 등 부도덕하고 불륜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다.

AIDS가 세계 의학계에 최초로 보고된 지 불과 수년만에 전세계에 만연되어 죽음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현대의 역병으로 창궐한 것은 성개방 풍조에 따라 성관계가 문란해지고 청장년층의 성접촉 빈도가 급격히 잦아지고 변태적인 형태와 기법이 성행하는 등 현대인의 생활자세가 불륜과 방종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인생의 최절정기를 맞은 청장년이 AIDS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이유도 AIDS가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데다가 성개방 풍조에 노출되어 있는 연령층이 정력이 왕성한 청장년층이기 때문이다. AIDS는 인간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부부중의 한사람이 AIDS 함정에 빠지면 배우자도 어김없이 감염되며 자녀들까지도 모태감염 등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어 끝내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AIDS 창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혼외정사, 동성연애 등 부도덕하고 불륜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다.

가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사랑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다.
 불륜과 방종 등 가정생활의 불충실이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끝내는 가정을 완전 파괴하는
 AIDS는 가정파괴범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가정 파괴범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이 혼외정사로 HIV에 감염되어 부인까지 감염시킨 사례는 국내에도 여러 건 보고되었다. 감염자의 부부관계는 배우자 감염뿐만 아니라 잉태의 경우 모태감염된 영아의 출산하는 결과를 빚어내며 특히 가임(可妊) 여성의 감염은 모태감염된 영아의 출산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까지 아프리카에서만 3백만명의 가임(可妊) 여성이 AIDS로 사망하며 AIDS로 부모를 잃은 15세 미만의 고아가 5백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같은 추정은 AIDS가 인간사회의 기본구조인 가정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가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륜과 방종 등 가정생활의 불충실이라는 틈새를 파고들어 끝내는 가정을 완전 파괴하는 AIDS는 가정 파괴범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가정 파괴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사랑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다. 이 소중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며, 사회구조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병들고 파괴된다면 사회와 국가도 견뎌내지 못하고 인류문화마저 파멸에 이를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안식처인 가정의 평안, 좀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도 우리는 AIDS를 박멸하여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AIDS 극복의 유일한 방법은 치료약과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철저한 예방밖에 없으며 그것은 충실하고 절제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하고 안락한 안식처로 꾸는 일이다. 건강한 배우자가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방종과 불륜에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AIDS가 파고 들래야 파고들 틈새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AIDS가 신의 저주를 받은 현대의 역병이라는 별명을 듣게 된 것은 바로 불륜 퇴폐 방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AIDS의 창궐에 위기감을 느낀 현대인에 불륜과 퇴폐로 빠져들던 생활자세를 바로 잡고 절제와 건실로 돌아선다면 가정의 소중한함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